

#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넘어야 5천만원 모아

오늘 금리 1차 공시... 금리·만기유지가 관건

중도해지 방지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관심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취급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과 만기유지율이 정책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이달 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고금리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 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고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정책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몇 %대로 책정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연 6%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70만원씩 60개월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4200만원이 된다. 6%의 단리를 적용할 경우 세전이자지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다. 여기에 정부 최소 기여금인 월 2만1000원을 더하면 비과세 기준으로 4966만500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12개 취급기관은 오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1차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는 다음달 12일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가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만기유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

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 등으로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45만명이 해지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예적금담보대출로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해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지책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뉴시스

# 순천정원박람회 기념주화 구입 서두르세요

조폐공사 온라인몰·농협·우리은행 구매예약...13일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는 박람회 기념주화를 발행해 오는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 화종은 총 2종으로, 순도 99.9%, 지름 35mm, 중량 19g의 순은으로 제작된 채색주화이다. 발행량은 화종별 각 7000장으로 액면가는 5만 원이며, 판매 가격은

은 단품은 6만3000원, 세트는 13만6000원이다.

은화 I 앞면은 박람회의 대표 정원인 호수정원의 전경을 묘사했으며, 은화 II 앞면은 노을 지는 순천만습지와 순천시의 시조(市鳥)인 흑두루미를 표현했다. 공통적으로 은화 뒷면은 박람회 회장으로써 순천의 영문 S와 봉화언덕을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나타내며, 나뭇잎은 자연을 상징한다.

기념주화 판매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식 예약제로 진행된다. 접수량이 발행량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예약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예약접수는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및 전국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지점 창구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기념주화는 국가적 행사 및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홍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가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 'aT 스마트 스튜디오' 농가 상품 촬영·라이브 판매 원스톱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와 식품기업의 실시간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홍보콘텐츠 제작과 영상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aT는 농가와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용 상품 이미지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비롯해 올해는 호남·영남·충청·제주 등 4개 지역거점에 조성한 스튜디오를 본격 운영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양재동 'aT 스마트 스튜디오'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시설로 50여 평 규모에 30여종의 최첨단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다.

공사는 이곳에서 국내 농림축산식품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사진·영상 촬영부터 라이브커머스 진행, 수출용 다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K-푸드에 글로벌 홍보와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신상품' 판로개척을 필두로 청년 농부, 저탄소 농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테마형 콘텐츠 제작과 판매방식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홈플러스, 여름 제철 맞은 '당도보장' 과일 선배 홈플러스는 여름 제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수박·메론·참외 등을 선보이는 '여름과일 당도보장'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11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가 보장된 수박 전 품목을 행사카드로 구매 시 3000원 할인한다.

/뉴시스

# 내달 1일 이후 출고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18%↓

4200만원 자동차 구입하면 54만원 절감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 소비세율 5% 적용 시 5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현재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쏠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와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 "최저임금 1만2천원 시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 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 예측돼"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소는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실증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해당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

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한 파이터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여수광양항, 총물동량 증가세 전환

4월 누계 기준, 수출입화물 6700만톤 처리...국내 1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여수광양항의 올해 4월 누계 총물동량이 9100만톤을 처리하며 물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전년 대비 1.5% 하락으로 시작한 총물동량은 2월과 3월 누계치가 각각 4.7%, 1.5%로 하락하다가 4월 들어 누계 1% 증가로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4억 9400만톤 처리 됐으며, 제철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억 1000만톤이 처리됐다. 다만, 총물동량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583만TEU로 전년대비 16.8% 감소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것은

작년 한해 북미 항만의 혼잡으로 인해 원양노선의 잦은 스킵(건너뛰기) 현상으로 광양항에 부장기선이 많이 기항했던 것에 반해, 올해 컨테이너 서비스가 정기성을 되찾으면서 부장기선 물량이 대폭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YGPA는 분석했다.

또한, 선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선사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는 환적 화물이 대폭 줄어 든 것도 '컨' 물동량 감소에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YGPA는 광양만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관련 화물 등 지역 산업에 대한 항만 지원 기능을 지속 확대하고, 특히 컨테이너 항만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 물류서비스가 보다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양=조순익기자

# 기아, 벤들리 출신 디자이너 존 버킹햄 영입

인재영입·조직개편으로 차별화한 디자인 역량 확보



기아가 BMW·벤들리·페라데이퍼처 등을 거친 자동차 디자이너 존 버킹햄을 기아렉스디자인 외장실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기아는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기아디자인센터라는 명칭을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로 바꾼 바 있다. 센터장인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아래 김택근 상무가 주도하는 기아렉스디자인팀이 담당이 스타일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 운영 체제가 확립됐다.

콘텐츠가 디자인을 이끌었다.

2018년에는 벤들리리 자리를 옮겨 EXP 100 GT 콘셉트, 풀러니 바칼라 등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했다. 2022년부터는 전기차업체인 페라데이퍼처에서 플래그십 전기차인 FF91의 디자인 개발을 포함해 브랜드 디자인 전체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버킹햄 실장은 앞으로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담은 차세대 외장 디자인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기아가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기아는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기아디자인센터라는 명칭을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로 바꾼 바 있다. 센터장인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아래 김택근 상무가 주도하는 기아렉스디자인팀이 담당이 스타일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 운영 체제가 확립됐다.

# 광주은행 '100년 은행 발전 아이디어 공모'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6년 연속 1위를 기념해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과 상상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광주은행 상품·서비스·제도 관련 불편 사항 이다. 참여 대상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횡수에는 제한이 없다.